



〈이세돌 9단〉

이세돌과 최철한은 국내 프로기사들의 산실로 통하는 권갑룡 도장에서 숙식을 하면서 바둑 수업을 받은 동문이다. 이세돌이 12살 때인 95년 7월에 입단했고, 동생 최철한은 2년 뒤 같은 길에 들어섰다.

그러나 이들은 프로세계에서 '파이'를 함께 나눠먹을 수 없는 라이벌

동문수학 동료에서 '차세대 황제' 맞수로

이세돌 - 최철한 '빅뱅'

내달 4일 GS칼텍스배·20일 KBS 바둑왕전 한판승부

이다. 이창호 9단에 이어 차세대 '황제'를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둘은 서로가 극복해야 할 대상일 뿐이다.

한술밥을 먹었던 이들이 2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11월 4일 열리는 제11기 GS칼텍스배와 같은달 20일 제25기 KBS 바둑왕전 결승 제2번기에서 자웅을 겨루게 된 것이다.

'절체절명'의 승부에서 기선을 잡은 쪽은 이세돌 9단. 지난 23일 열린 대국에서 최철한 9단을 180수 만에 백 불계로 제압, 대회 첫 우승까지 1

승을 남겨두고 있다.

이세돌은 이 승리로 대 최철한전 3연패에서 벗어나면서 통산 전적에서도 11승 8패로 격차를 넓히고 있다. 하지만 올해 전적에서는 이세돌 9단이 최철한 9단에게 3승4패로 열세다.

현재까지 주요 대국 결승전 전적으로는 이세돌 9단이 리드하고 있는 상황. 지난해 7월 후지쯔배 세계대회 결승과 올 맥심커피배 입선 최강전에서 이세돌, 지난해 8월의 중환배 세계 대회 결승에선 최철한이 승자였다.

이번 2개 대회는 최철한 9단으로서

는 설욕전이고, 이세돌 9단은 확실한 우위를 굳힐 수 있는 기회인 셈이다.

두 기사의 기풍이 다르다는 점도 팬들의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세돌 9단은 기습과 타가에 능한 변칙 플레이어이고 전투감각 또한 탁월하다. 최철한 9단은 두터움에 깊은 수읽기, 그리고 동양철처럼 절기고 강한 완력이 특징이다. 이세돌이 '표범'을 연상시킨다면 최철한은 '독사'를 떠올리게 한다.

국내 랭킹에서도 둘은 보이지 않는 라이벌전을 벌이고 있다. 이세돌이 랭킹 2위, 최철한이 3위다. 이세돌이 1만9천842점으로 앞서고 있고 1만8천581점을 확보한 최철한 9단이 추격하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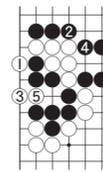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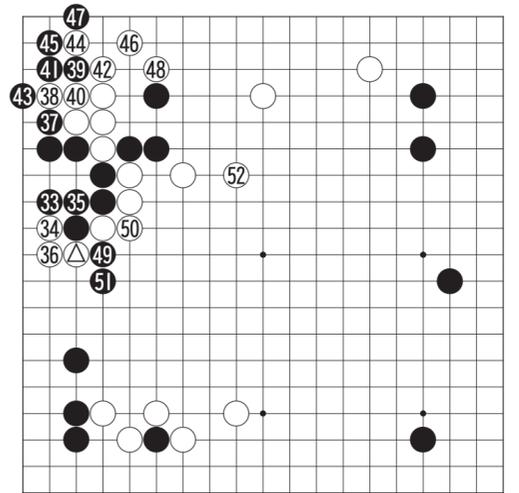
〈최철한 9단〉

올해 전과면에서도 둘의 희비는 극명하게 갈린다. 이세돌이 맥심커피배와 물가정보배를 손에 넣은 반면, 최철한은 무관이다.

최철한은 지난해까지 국수전을 2연패하는 등 절정을 달렸으나, 국수전, 맥심커피배 입선최강전 준우승 2차례 뿐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



白 유흥주 5단 <KT전남본부> 黑 박광주 5단 <포스코>



〈참고도〉

면 양쪽 중 누군가는 큰 피해를 입기 마련이다. 그러나 때로는 과국을 피해 양자간 무언의 극적인 타협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이 고수들의 싸움이다.

이렇게 된 이상 흑 33부터 백 38까지는 외길 수순이다. 흑 대마가 곧 잡힌 듯이 보였으나 박광주 5단

의 노림은 흑 39로 들여다 보는 수였다. 과연 백 5단의 기대대로 47까지 백집을 깨고 선수로 살아가는 흑의 대성공이다.

그러나 당연한 듯 보이는 이 과정에 기회를 놓쳐버린 백의 대실착이 숨어 있었다. 흑이 41로 남자와 할 때 백 42로 물러선 수가 바로 그것. 이수는 흑의 기세에 눌린 굴복으로, 차분히 대응 했더라면 '참고도'의 백 1로 찢혀 흑을 잡는 수가 있었다.

흑 2, 4로 쪼혀 오더라도 3으로 차중하는 수가 묘수가 되며 흑을 잡을 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 수단을 놓치고 52까지 바퀴치기가 되어서는 흑의 승부수가 성공한 국면이다. <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장주주 9단 맥심커피배 8강 선착



장주주 9단이 입선들의 향연인 맥심커피배 첫 8강 진출자가 됐다.

장주주 9단이 지난 24일 한국기원 바둑TV스튜디오에서 열린 제8회 맥심커피배 입선최강전 본선 2회전에

본선 2회전에서 백성호 9단 꺾어

서 백성호 9단에게 189수 만에 흑 불계승을 거두고 8강에 선착했다.

이날 승리를 거둔 장 9단은 박정상 9단과 최명훈 9단의 대국 승자와 본선 3회전 진출을 다툰다. 장 9단은 이날 승리로 올해 6승 9패를 기록했다.

장주주 9단은 북경 사범대학 출신으로 지난 1999년 3월 한국기원 객원 기사로 한국 무대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이 대회 우승상금은 2천만원. 전기에는 이세돌 9단이 최철한 9단을 누르고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이번 대회에는 이창호, 조훈현, 김인 9단을 제외한 모두 38명의 9단이 참가했다. 제한시간은 각 10분에 40초 조위가 3회. /윤영기기자 penfoot@

한국 바둑 부활 LG배에 건다

이창호·조한승·홍민표 등

30~31일 LG배 8강전 출격

한국바둑이 부활의 신호탄을 쏘 올릴 수 있을까.

한국바둑은 올해 박정상이 후지쯔배 우승을 차지한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 국제 기전 우승권에서 모두 탈락함에 따라 LG배와 삼성화재배 8강에 묵을 때가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절박한 상황에서 반전의 기를 다질 수 있는 제11회 LG배 세계기왕전 8강전이 오는 30일, 31일 이를 동안 열린다. 한국은 이창호 9단을 비롯, 조한승 9단, 홍민표 5단 등 3명이 출전해 명예회복을 기약하고 있다.

중국을 지난 대회 우승, 준우승자인 구리 9단, 천야오에 5단을 비롯해 후야오위 8단, 췌에허 6단 등이 우승을 넘본다. 오랜만에 세계무대 8강전에 올라온 대만의 저우전선 9단도 한국행 비행기를 탄다.

30일에는 조한승 9단이 중국의 '신예' 천야오에 5단과 맞대결을 펼친다. 깊이가 있는 바둑을 추구하는 조 9단과 패기에 찬 천 5단의 첫 대결은 승부 못지 않게



〈이창호 9단〉

〈조한승 9단〉

〈홍민표 5단〉

관심을 끄는 대국이다.

31일에는 이창호 9단이 중국의 후야오위 8단과 일전을 치른다. 중국 랭킹 4위인 그는 이번 대회서 조훈현 9단과 야마시타 게이코 9단 꺾고 올라왔다.

홍민표 5단과 구리 9단의 대국은 이번 대회 최대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중국 부동의 1인자 구리 9단으로 이에 맞서는 홍민표 5단이 그의 예봉을 꺾을 지 팬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대회 우승 상금은 2억5천 만원.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Movie advertisement for 'Happy Time' and '영화안네'.

Advertisement for '메가박스' (MegaBox) with movie listings.

Advertisement for '기을로' (Gyeolro) movie.

Advertisement for '엔터시네마' (Enter Cinema) with movie listings.

Advertisement for '마음이' (My Heart) movie.

Advertisement for '컬럼버스시네마' (Columbus Cinema) with movie listings.

Advertisement for '거북한계보' (Turtle's Ancestry) movie.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건물매도' (Building Sale) and '모든업종 최고요지' (Best location for all business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대인동삼일부동산' (Daedong Samil Real Estate).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일가공인중개사' (Real Estate Broker).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LC타워(주)' (LC Tower Co.).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21세기컨설팅주식회사' (21st Century Consulting Co.).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현대공인중개사' (Hyundai Real Estate Broker).